

opinion of hazard of smoking to health.

conclusion: In 2002, 5.6% of Seongbuk-gu smokers in and over twenties were hard-core smokers. Compared with other smokers, It was found that a person who was in '30-40th', '12 years of education' and 'married' would be more likely to be hard-core smoker. It was also found that a hard-core smoker tended to start smoking at younger age than others groups and also showed more negative health opinions to smoking than other groups.

KSPM-173

고등학생들의 암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신념에 관한 연구

Knowledge, attitude and beliefs about health and cancer prevention : the views of high school students

한지형¹⁾, 백은미¹⁾, 윤태형¹⁾, 한동운^{1),2)}

(1) 한양대학교 보건의료연구소, (2)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목적: 최근 암 발생의 증가는 사회적인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그 발생위험요인으로는 환경적인 요인과 일상적인 생활습관이 주 원인이라는 연구결과가 계속적으로 보고 되고 있다. 특히 개인의 건강행위가 그 주요 원인의 하나이며, 이는 사회?심리적, 인구사회학적 요인 등에 의한 영향을 받으며, 또한 개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건강행위나 태도, 지식습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되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보건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암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신념에 대한 실태와 관련 요인을 분석하였다.

방법: 서울지역의 H고등학교 학생 460명에 대한 자가기입식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한 총 430개의 설문지를 최종분석 하였다. 설문내용은 기존 연구논문에서 사용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토대로 연구목적과 대상에 맞게 수정하였고, 예비조사를 통해 보완하였으며, 설문 문항은 크게 건강에 대한 ①지식, ②태도, ③신념, 암에 대한 ④지식, ⑤태도, ⑥신념으로 구분하였다. 응답자의 건강행위를 바탕으로 암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신념을 알아보기 위해 건강 및 암에 대한 지식과 태도, 신념을 빈도분석, Chi-square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 등을 시행하였다.

결과: 첫째, 암에 대한 지식을 조사한 결과 암에 대해 응답자의 94%가 들어 본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대중매체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8%(422명)가 흡연은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였다. 둘째, 암에 대한 태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암에 대한 관심정도에서는 39%(169명)가 관심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각종 암중에서도 폐암이 가장 두렵다고 답하였다. 암에 대한 교육경험여부에서는 40%만이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81%가 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셋째, 암에 대한 신념을 조사한 결과 암에 대해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에서는 96%(413명)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고, 87%는 암은 예방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암에 대한 관심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암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정의 상관관계(r

=.190)를 보이고 있으며($p<0.01$), 암에 대해 관심이 많을수록, 암이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교육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109, p<0.05$).

결론: 청소년들에 있어 암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있는 질병이었으며, 대부분 상식적인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암은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고 이는 생활습관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으나, 생활태도에 있어서는 암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은 잘 지켜지지 않았으며, 암에 대한 신념은 대부분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체계적인 암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시기부터 암에 대한 보건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학교 보건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KSPM-180

지역주민들의 암 조기검진 실천단계 조사: 예방책 채택과정 모형 (Precaution Adoption Process Model)의 활용

Stage Assessment of Cancer Screening Behavior: Using the Precaution Adoption Process Model (PAPM)

이명순¹⁾, 강민정¹⁾

(1)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목적: 암은 우리 나라 국민들의 사망원인 1위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암 발생 및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암 조기검진을 통해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재, 국가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 시민들의 암 조기검진 실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대상집단의 암 조기검진 실천 정도에 따른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Precaution Adoption Process Model(PAPM)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암 조기검진 실천정도를 조사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 암 조기검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방법: 조사 대상집단은 4개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암 조기검진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서 31세 이상 65세 미만인 지역주민 1,0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표본추출은 성, 연령, 암 검진비용 혜택여부 등을 고려해서 할당표본추출을 하였다. 조사내용은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암 조기검진 실천단계, 암 및 암 조기검진 관련 요인 등이다. 조사도구는 PAPM에 근거하여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조사설문서 형태로 개발하였다.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조사설문서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또는 조사원에 의한 개인 면접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암 조기검진 실천단계, 암 및 암 조기검진 관련 요인 등에 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암 및 암 조기검진 요인에 따른 암 조기검진 실천단계 분포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PAPM에 근거해서 암 조기검진 실천정도를 6단계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암 조기검진 고려단계가 2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암 조기검진 실시단계 28.6%, 암 조기검진 비인식 단계 18.9%, 암 조기검진 실시결정단계 11.6%, 암 조기검진 무관심단계 9.7% 순으로 나타났다. 암 조기검진 비실시 결정단계는 1.5%에 불과하였

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경우, 남자보다는 여자가, 연령이 많을수록, 미혼에 비해 기혼이나 별거/이혼/사별한 경우가 암 조기검진 실천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지역 및 가족의 월평균 소득에 따른 암 조기검진 실천단계의 차이는 없었다. 암 및 암 조기검진 관련 요인에서는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인한 무료검진 대상자인 경우와 주위 암 환자 경험 및 가족의 암 조기검진 경험이 있는 경우가 암 조기검진 실천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 PAPM의 실천단계에 따른 지역주민의 암 조기검진 실천정도를 조사한 결과, 암 조기검진 실천정도가 여러 단계에 걸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암 조기검진 실천경험율은 28.6% 정도였다. 그러므로,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암 조기검진 실천단계에 따른 단계별 적절한 접근전략 및 개입방법을 개발해서 접근해야 한다.

KSPM-196

역량중심의 지역보건인력 교육프로그램: 암 관리사업을 위한 의사소통기술' 워크샵

A Competency-Based Educational Program for Public Health Workers: Health Communication for Cancer Control' Skill Workshop

이명순¹⁾

(1)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목적: 지역수준에서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지역보건소의 사업담당 지역보건인력들의 암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 역량함양 및 전문적 기술습득이 필요하다. 국립암센터에서는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국가 암 예방 및 조기검진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으나,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교육과정의 지속적 운영과 함께 지역보건인력들의 사업관련 전문적 기술습득이 가능한 전문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암 예방 및 조기검진사업의 효과적인 전개를 위해, 지역주민과 지역보건인력의 교육요구를 토대로 지역암 관리사업 담당 지역보건인력들을 위한 역량중심의 전문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실시함으로써 지역보건인력의 암 관리사업수행을 위한 역량을 함양하고자 하였다.

방법: 현재 암 관리사업 담당자 중 국가 암 예방 및 조기검진 기본교육과정 이수 및 6개월 이상의 암 관리 사업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서 교육프로그램의 기본방향 및 개발원칙을 정하고, 지역주민(4개 기초지방자치단체)과 지역보건인력(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을 대상으로 암 예방 및 조기검진 실천을 위한 교육요구와 사업수행에 관한 교육요구를 조사하였다. 주요 핵심 교육영역을 교육요구조사를 근거로 선정하고, 교육목표는 구체적 사업수행 역량중심으로 선정해서 교육모형을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구체적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을 개발하여 교과과정을 구성하였다.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이론적 모형 (PRECEDE- PROCEED 모형, 예방책 채택과정 모형, 건강신념 모형, 성인학습이론, 의사소통이론 등)을 활용했다. 교육프로그램은

지역 암 관리사업을 담당하는 지역보건인력 30명을 대상으로 3일간 1회 실시하였다. 교육평가는 교육과정 구성 및 교육진행 등에 관한 과정평가와 참여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지식, 기술, 태도 변화 및 업무수행 자신감 등 교육후 단기성과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였다.

결과: '암 관리사업을 위한 효과적인 의사소통기술' 역량중심의 3일간의 skill workshop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교육모형과 구체적 교육목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7가지 구체적인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개발하였고, 구체적 교과과정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본 개념 및 기획 틀, 대상집단별 접근방법, 정보검색 및 메시지개발과 적절한 매체활용 방법 등' 크게 네 영역으로 나누어서 17unit로 구성하였다. 교육방법은 강의와 실습, 소그룹 및 전체토의, 역할극, 팀과제 학습, 발표 및 토의, 자가학습진단 등 다양한 경험중심의 학습방법 등을 활용해서 가능한 많은 참여학습기회를 제공하였다. 교육참여자들은 3일간의 워크샵 동안 높은 학습열의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교육에 관한 과정평가에서, 교육참여자들은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구성, 교육방법과 교육진행방식 등에 관해 높게 평가하였고, 특히, 교육참여자의 적극적인 학습태도 및 직접 참여학습 기회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교육 후 단기성과에 대한 평가자료는 현재 수집중이다.

결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핵심역량 중심의 접근은 실제적인 업무수행 관련 기술습득을 위한 교과과정 구성 가능하게 하였다. Skill Workshop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은 많은 참여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참여자들로 하여금 높은 학습열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게 하였다. 그러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실제 기술습득 여부와 암 관리사업에 미치는 교육효과 등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KSPM-198

급식서비스 및 영양교육이 영양불량위험 노인의 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meal service and nutrition education on dietary behavior of the elderly at risk of undernutrition

윤혜정¹⁾, 황인경¹⁾, 강현주²⁾, 이경아²⁾, 이효선¹⁾, 조병만¹⁾, 이수일¹⁾, 윤훈태호¹⁾

(1)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및 산업의학교실, 2) 동부산대학 식품영양과

목적: 영양상태가 불량한 지역사회 노인들을 대상으로 영양교육과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의 영양지식, 식생활태도 및 식이섭취 수준의 변화를 관찰하여, 노인들의 영양 증진에 효과적인 지역사회 전략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방법: 부산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462명을 대상으로 영양불량 스크리닝 도구인 Mini-Nutritional Assessment (MNA)를 이용하여 영양 불량 위험도를 평가하고, 식이섭취수준과 영양지식 및 식생활태도를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에 영향을 주는 만성질환에 이환되어 있지 않고 영양 불량 위험군(MNA score<24)으로 판별된 노인 93명 (평균연령 74세, 남:19, 여자:74)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들